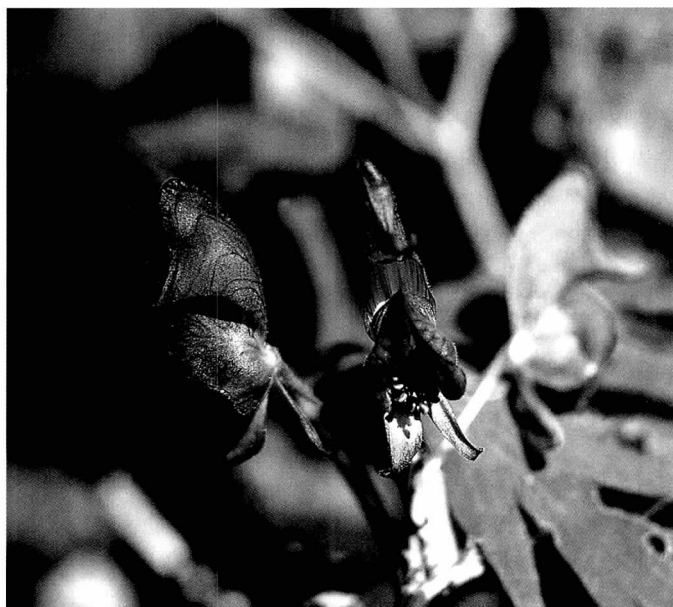


사라져가는 희귀식물(8)

그늘돌쩌귀
(*Aconitum*
uchiyamai
NAKAI)

글: 김재황
(시인)

사진: 김 종권
(본회 대의원)



우

리나라 들꽃들은 대체적으로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
한 모습이다.

우리의 국민성이 그러하듯, 순수하고
착한 표정으로 피어난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씩씩한 용사의 기
상을 지닌 들꽃들도 더러 있다. 이른바
투구꽃, 또는 바꽃, 돌쩌귀 종류들이 바
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투구의 형상으
로 꽃이 피어난다. 누구든 이 땅을 한
발짝이라도 침범한다면 용서하지 않겠
다는 의지가 서려 있는듯하다.

그늘돌쩌귀는 지리산과 금강산 및 북
부지방에 자생한다. 여러해살이풀이다.
키는 1m 가량이고, 온 몸이 매끈하여
기름이 있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자루가 길지만,
줄기에서 나온 잎은 자루가 짧거나 위

로 가면서 없어진다. 셋으로 갈라진 잎이, 다시 둘로 쪼개진다. 처절한 아픔이 있다.

꽃은 8월에 핀다. 자줏빛이 도는 연한 하늘색이다. 원한이 서린 성싶은 빛깔이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투구처럼 보이는 것은, 윗부분의 한 꽃받침잎이다.

모두 5개가 있다. 옆쪽의 2개는 거꾸로 된 달걀꼴이고 밑부분의 2개는 길둥근꼴이다.

정작으로 2개의 꽃잎은 꽃받침잎 속에 숨어 있다. 많은 수술을 지녔다. 씨방은 5개이고, 암술대가 끝에서 뒤로 젖혀진다.

뿌리는 약재로 쓰는데, 생약명으로 '초오(草烏)' 또는 '오두(烏頭)' 등으로 부른다.

물론, 투구꽃이나 바꽃 종류들로 함께 쓰인다.

이들은 뿌리에 맹독성의 아코니톤(Aconiton), 메사코니톤(Mesaconiton), 하이파코니톤(Hypaconiton) 등을 함유하고 있다. 진통, 진경의 효능이 있고, 중기로 인한 부기를 가라앉혀 준다.

그러나,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임금이 죽을죄를 지은 신하에게 내리던 사약(賜藥)도 바로 이들 뿌리로 만든 것이다.

문득, 폐비 윤씨의 일이 생각난다. 연산군의 어머니요, 성종 임금의 왕비인 윤씨. 윤씨는 임금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낸 게 빌미가 되고, 후궁들의 모함이 보태어져서 끝내는 사약을 받게 되었다.

폐비 윤씨는 약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깃무른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한삼 자락으로 그 눈물을 훔쳤다. 새빨간 피눈물이 흰 한삼을 아롱아롱 물들였다. 마침내 두 눈을 딱 감고 약그릇을 입에 대어 들이켰다. 울컥 입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

그것을 또 한삼 자락으로 받았다.

“어머니, 나는 이제 가는 사람입니다. 동궁이 무사히 자라거든 이 한삼을 전해 주오.

지원극통한 이 말씀은 전해 주오.”

피물은 한삼을 어머니 신씨에게 내밀며 윤씨는 죽어 갔다.